

여행사 대표 고객 돈 갖고 잠적...광주시관광협회는 뭘했나

회원 수 늘리기 급급...사후 관리는 엉망

영세업체까지 가입...피해보상 길 막막

광주시관광협회 등록 회원사인 H여행사 대표가 고객에 맡긴 여행 대금을 받고 잠적한 '여행사기' 사건(광주일보 6월 9일자 6면)과 관련, 광주시 관광협회의 부실한 회원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관광협회의 정책 마인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일 광주시와 광주시 관광협회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서 운영중인 475개의 여행사 중 관광협회에 등록된 회원(여행사)은 150개에 이른다.

광주 관광협회는 이들 업체를 홈페이지

를 통해 '건실한 협회 회원 여행사'로 소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권고하면서도 참신한 상품 개발이나 지역 여행업계의 낙후성을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 향상 정책 등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관광 산업으로 여행업계와 광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효율적인 관광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데는 뒷집을 지고 있다는 얘기가.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100만원의 가입비를 납부하면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고려조차 없이 회원사로 인정하는 게 협회 업무의 전부'라는 등 무분별한 회원사 유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돈만 내면 원하는 사업자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형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최근 여행객 사기 사건이 발생한 광주대인동 H 여행사도 광주시 관광협회 소속 회원사임에도, 피해 발생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협회는 또 비회원사인 S항공여행사에서도 비슷한 여행 사기 사건이 발생, 소비자들의 문의가 잇따르자 6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한 상태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중이다.

지역 여행업계에 대한 부실 관리뿐 아니라 광주시 관광업계의 대표임에도, 소비자들 믿고 따를 수 있는 책임있는 여행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당장, 현행 관광진흥법(9조)은 관광(여행)사업자의 경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는 1억원 미만 매출을 올리는 여행사의 경우 '국내 여행업은 2000만원, 국외여행업 3000만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경우 국내 여행업 3000만원, 국외여행업 4000만원 수준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여행사가 단체 해외여행 계약 이후 잠적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최근 여행 사기 사건이 발생한 S항공여행사의 경우 피해 금액이 6200만원에 달하지만 보증 보험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0만원에 불과, 일부 피해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박기용 수습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해질 16:38
해짐 19:46 달짐 02:52

미세먼지 '보통'

늦은 오후부터 비 오겠다.



◇지역별 날씨(℃)

| | | | | | |
|----|------|-------|-----|------|-------|
| 광주 | 비 | 19/27 | 보성 | 비 | 17/25 |
| 목포 | 구름많음 | 17/24 | 순천 | 비 | 19/26 |
| 여수 | 구름많음 | 19/23 | 영광 | 구름많음 | 18/25 |
| 나주 | 비 | 18/26 | 진도 | 구름많음 | 17/24 |
| 완도 | 구름많음 | 18/24 | 전주 | 비 | 19/28 |
| 구례 | 비 | 18/28 | 군산 | 비 | 17/26 |
| 강진 | 구름많음 | 18/25 | 남원 | 비 | 18/27 |
| 해남 | 구름많음 | 18/25 | 속산도 | 구름많음 | 16/23 |
| 장성 | 비 | 17/26 | | | |

◇바다 날씨

| 지역 | 바다 | 오전 | | 오후 |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 | 앞바다 | 북동~동 | 0.5~1.0 | 북동~동 | 0.5~1.0 |
| | 먼바다 | 북동~동 | 0.5~1.5 | 북동~동 | 0.5~1.5 |
| 남해 | 앞바다 | 북동~동 | 0.5~1.5 | 북동~동 | 0.5~1.5 |
| | 먼바다 | 북동~동 | 1.0~2.0 | 북동~동 | 1.0~2.0 |

◇생활지수

| | |
|-----|----|
| 식중독 | 64 |
| 운동 | 40 |
| 빨래 | 70 |

◇물때

| 목포 | 밀물 | | 썰물 | |
|----|-------|-------|-------|-------|
| | 11:28 | 05:05 | 00:00 | 17:12 |
| 여수 | 06:37 | | 00:41 | |
| | 19:26 | | 12:39 | |

◇주간 날씨

| 11(수) | 12(목) | 13(금) | 14(토) | 15(일) | 16(월) | 17(화) |
|-------|-------|-------|-------|-------|-------|-------|
| ☁ | ☀ | ☀ | ☀ | ☀ | ☀ | ☀ |
| 18/26 | 19/27 | 18/28 | 18/29 | 18/29 | 18/29 | 19/29 |



기말고사 시험준비 한창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오면서 대학 도서관마다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9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좌석이 가득찬 가운데 학생들이 시험준비에 여념이 없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모시겠다는데 거절한다며...

존속상해 50대 아들 체포 어머니는 처벌 원치 않아

광주북부경찰은 9일 어머니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존속상해)로 오모(53)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이날 새벽 새벽 4

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모친(75)과 딸다툼을 벌이다 흥기로 위협,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외아들인 오씨는 최근 사업 실패로 모친 소유의 집과 땅을 잃은 뒤 모친과 잦은 다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 오씨는 "함께 살려는데 '편하게 혼자 살고 싶다'는 어머니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한편, 오씨 어머니는 경찰에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반달곰의 적은 사람이었다

지리산 서식 1마리 사냥꾼 울무에 걸려 숨진채 발견

관리공단측, 불법엽구 제거 불구 벌써 4번째 사망

지리산에서 서식 중인 반달가슴곰의 적(敵)은 결국 인간이었다.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 성공의 최대 걸림돌이 울무(사진) 등 인간이 만들어 설치한 불법엽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반달가슴곰 1마리가 사냥꾼이 설치한 울무에 걸려 죽은 상태로 발견됐다. 구례군 마산면에 위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에서 폐사한 반달가슴곰의 위치를 추적하던 중 발신음이 '음직임이 없는 상태'로 수신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등 불법 엽구로 인해 반달가슴곰이 죽은 것은 이번이 4번째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울무 등 불법엽구로 인한 반달가슴곰 폐사를 막기 위해 지리산과 지리산 인근 지역에서 해마다 600개에 이르는 울무, 창에 등 불법엽구를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있지만 밀렵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달가슴곰 폐사를 막는 것은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숨진 반달가슴곰은 지난 2011년 지리산 야생에서 태어난 3살난 수컷으로 그동안 지리산에 잘 적응해 살고 있었다. 숨진 반달가슴곰은 경남 하동군 야산에서 발견될 당시 허리에 울무가 걸린 상태로 종복원기술원은 울무에 걸린 반달가슴곰이 나무 위로 올라가 버둥거린 채 울무 줄이 나무에 뒤엉킨 채 떨어져 나무에 매달린 상태로 죽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관계자는 "지리산과 지리산 인근에 설치된 울무, 창에 등 불법엽구 제거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공단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여기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복중알가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는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가발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미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주택 외벽, 계랑기와 지붕, 사료탱크, 돈사 지붕

적용범위: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임길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미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